

鄭喆九 先生님

晴江 鄭喆九先生은 올해 70歲의 高齡이심에도 健康한 모습으로 患者施療에 熱中하고 계시다. 1933年 齒科醫師가 되신후 主로, 서울 鍾路區 昌成洞에서 開業하시면서 青年運動, 政黨生活, 國民會等에 關與, 地域社會 發展을 위해 獻身해 왔다. 檀國大學 法學部를 卒業하시기도. 한 鄭喆九先生님은 辯護士 豫備試驗에 合格한 豫備法學徒, 그後 法曹界에 因緣을 맺을 기회가 몇번 있었으나 뜻대로 되지를 않았다.

軍政當時 京畿道 保健厚生部 醫務官, 大韓齒友會 會長, 第5次 亞太會議顧問을 歷任하시면서 齒科醫學界에도 눈부신 活躍을 해오셨다. 三封生活 三省生活이 그의 座右銘이기도 하다.

6.25事變中 父親의 回甲을 헤드리지 못한 것이 恨이 되어 自身의 生辰인 1月 2日을 無酒無肉日로 一貫하고 先生님은 漢學에 造詣가 깊어서인지 祖上崇仰思想이 凡人과는 좀 다른데가 있다고 느꼈다.

7筭을 기리는 뜻으로 周圍의 漢學者들이 260項에 達하는 稀壽帖을 獻呈받았다고 대견해 하신다 草溪鄭氏大宗會 會長을 두번이나 連任하시고 계신 先生님의 自作詩한 篇을 여기에 紹介한다. 날로 健康하시고 70回生辰을 衷心으로 祝願한다.

忠淸北道 陰城出身 서울鍾路區體府洞47

鄭喆九 齒科齒院院長

전화 72-1589

1909年 1月 2日生



生朝感懷  
 七十星霜大半霧 中身計穩達  
 時思親編感迎風栢 為國還羞向  
 日暮心紫未成人 已老膏圖不遂運  
 先衰蕭 白髮餘年 樂唯存  
 孫遠夫 晴江自述

KUM KANG  
 Dental Lab

261-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종로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